

### 제 38 회 간호문학상 수상작

간호사신문이 주최한 제38회 간호문학상 수상작이 확정 발표됐다.

올해 간호문학상 공모에는 소설 14명, 수필 36명, 시 35명, 수필 43명 등 4개 부문에서 총 128명이 응모했다. 간호사 103명과 간호대학생 25명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소설부문 △당선작= '실밥'(송성연·동원공과대 2학년) △가작= '고추 먹고 뽀뽀'(최혜지·대구 가톨릭대 4학년)

◇수필부문 △당선작=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여'(장화숙·서울시 서남병원) △가작= '신생아중환자실의 일상'(정재현·분당서울대병원)

◇시부문 △당선작= '인연'(이숙련·동원과학기술대 교수) △가작= '보름달'(오금숙·메디칼칼럼요양병원)

◇수필부문 △당선작= '밥과 임종실'(허수정·명지병원 압동합치유센터) △가작= '일상을 바라보는 눈길'(공정원·울산대병원)

수상작품은 간호사신문 홈페이지(www.nursenews.co.kr)에서 볼 수 있다.

### 심사평 — 소설·수필부문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의 간호문학상 제정 취지와 그 운영의 결실을 새삼 경건한 마음으로 되짚어보며 정성껏 읽었다.

(소설부문) 그 우열을 따지기에 앞서 결코 쉽지 않은 소설 쓰기의 신명을 삶의 오솔길로 선택한 수호 천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당선작: 「실밥」(송성연)은 비 오는 날 편의점 알바생의 관심 속에 투영된 바깥 세상 보여주기가 압권이다. 읽는 이들을 고문하고 충동하는, 서사 그 긴장 연출의 디테일과 캐릭터의 실감은 악역도 짜낸 것이 아니라 재능의 발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천부적 이야기꾼으로 보여, 신났다. 기대가 크다.

•가작: 「고추 먹고 뽀뽀」(최혜지)은 도시생활을 떠나 고추농사를 지으며 혼자 사는 어머니를 찾

### 소설 쓰기 신명 선택한 간호사들에게 박수를

아 귀향한 작중 화자의 사변과 그녀스레가 다소 직설적이고 장황하지만 어머니의 그 무덤덤한 모습 보여주기에 글쓰이의 역량 확인만은 충분했다. 분발하길.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붉은 털실」(조소영)을 인상 깊게 읽었다.

(수필부문) 우열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읽는 이에 따라 그 선택이 다르리라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다음 두 편을 골랐다.

•당선작: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하여」(장화숙)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일하는 글쓰이의 생각이 차분하고 진솔하게 서술된 글이다. 특히 말기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료지식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가작: 「신생아중환자실의 일상」(정재현)은 아기바구니에 담



### 가슴 벅차고 행복한 글쓰기 마음 시리게 아프지만 필요한 시간들

**소설 당선작 소감**

먼저, 단지 글쓰기가 취미였던 저에게 문학의 길을 잠깐이나마 꿈꾸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소중한 소설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계기를 마련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에서 막연하게 써내려왔던 글들이 값진 소설로 변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글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혼자 고뇌하다 번득이고, 자기만의 방에 갇혀 소설에 몰두하던 그 때가 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인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수필 당선작 소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알고픈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의료인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초심을 되찾고, 제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함께 보냈던 많은 분들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처음 경험하고 홀로 걸어가는 마지막 길에 환자께도 보호자에게도 저의 설명이, 저의 간호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참 조심스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 합니다.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지음)라는 책은 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고단하기도 하고 마음 시리게 아픈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필요한 시간들이며 앞으로도 해야 하는 일들을 더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글을 쓰면서...

당선이라는 소식은 그동안의 시간들을 보상받고 수고했노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들이 됐습니다.



지음)라는 책은 저의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고단하기도 하고 마음 시리게 아픈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필요한 시간들이며 앞으로도 해야 하는 일들을 더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글을 쓰면서...

### 사람의 마음 헤아리는 글 쓰고 싶어

**시 당선작 소감**

당선 소식을 접하고 뿔 듯이 기뻐다. 삶이란 이렇게 좋은 일, 좋은 일이 얽여 짜여지는가 보다. 먼저 사유를 알아봐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봄 학교를 오가는 길에 시절을 찾아 자신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붉은 장미를 보며 세상 만물에는 높고 낮음이 없이 오직 존재 자체로 귀하고 완전할 뿐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 때의 생각을 글로 옮겨 본 것이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요즈음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는 소망을 가만히 가져본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지도교수 박형숙 교수님, 동생 같은 미순 쌤, 분에 넘치게 좋아해 주는 젊은 시절 직장 동료 변금순 씨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로 지켜봐주는 사랑받는 남편, 아들과 딸,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선 소식을 접하고 뿔 듯이 기뻐다. 삶이란 이렇게 좋은 일, 좋은 일이 얽여 짜여지는가 보다. 먼저 사유를 알아봐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품위 있는 죽음 준비하는 길 동행

**수필 당선작 소감**

먼저 수필 당선작에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상 소식은 웬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 같은 기분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수상 소감문을 생각하다보니 '어쩌다 어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에 어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국어사전의 어른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후자가 마음에 더 와 닿았습니다. 어릴 적에 받던 상은 신나고 자랑을 많이 했다면, 어른이 되어 받는 상은 책임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될 수는 있어도 죽음만큼은 남녀노소가 없기에 어쩌다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삶의 지혜와 지식만큼 배우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배움과 돌봄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이 동행해드릴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선 소식을 접하고 뿔 듯이 기뻐다. 삶이란 이렇게 좋은 일, 좋은 일이 얽여 짜여지는가 보다. 먼저 사유를 알아봐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29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기술직 공무원 (간호직,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국가면허시험 (간호사국가고시, 위생사) 연세대 RN-BSN

## 최다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적극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2017. 12월 대방열림고시학원 직강 현황 모습

- ★ 대방열림고시학원의 강점 ★
- 과목별 수험생 선호도 1위 교수진 구성
- 매년 기술직 공무원 최다합격자 배출
- 수강생이 가장 많고 입소문으로 유명한 학원
- 학원직장을 그대로 촬영한 최신 동영상 강의
- 최고의 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
- 최신 스마트폰 동영상 강좌 시스템
- 체계적인 시스템 및 학원직장 연중 무중단 진행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이론반 > 심화반 > 기출문제반 > 단원별·모의고사 문제풀이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가 가장 많이 응시하는 공무원

### 8급 간호직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시험 상세안내 보러가기

QR코드를 찍어보세요